

고졸 2년차 우완 김태형·홍민규 “성장 지켜봐 주세요”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최종우를 프로 첫 시즌을 보낸 친구 김태형과 홍민규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2006년생 고졸 2년 차 우완 김태형과 홍민규는 ‘실과 바늘’이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다. 각각 덕수고와 아탑고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을 했던 김태형과 홍민규는 같은 운동 센터를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함께 운동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던 두 사람은 KIA 1라운드 5순위, 두산 3라운드 26순위 지명을 받아 프로 데뷔 시즌을 보냈다.

팀의 막내로 정선없던 첫 시즌을 보냈던 두 사람은 최근 동료로 재회했다. 홍민규가 박찬호의 FA 보상 선수로 KIA의 선택을 받으면서 두 친구는 팀 동료가 됐다.

홍민규의 이적 소식을 듣고 먼저 전화를 걸었던 김태형은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변화구 체인지업이 좋기로 유명한 투수였다. 최근에는 일본을 상대로 후투를 하기도 했다. 야구 외적으로 아는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알려준다”며 “지난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확실히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많이 편해졌다”고 친구 홍민규의 합류를 반겼다.

프로 첫해 20경기에 나와 33.1이닝을 소화한 홍

김태형·‘박찬호 보상 선수’ 홍민규, KIA 캠프서 재회 ‘실과 바늘’
김 “두번째 캠프라 여유 생겨”…홍 “체인지업으로 입지 넓히겠다”

민규는 4.59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1패 1세이브를 기록했다. 또 9월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제3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해 9.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2승 6탈삼진을 장식하기도 했다.

홍민규는 “태형이가 같이 다니면서 많이 알려줘서 팀에 잘 적응했다”며 “태형이는 야구 잘한다. 고등학교 때 야구 신이었다. 공이 좋았다. 나이와 다르게 힘도 좋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지난 시즌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형은 “지난 시즌 말에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시즌 초에 힘들었지만 그 시절로 가지 않기 위해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두 번째 스프링캠프라 여유가 생겼다. 컨디션 급하게 안 올리고 차근차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뭉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다치면 안 되니까 잘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정구를 연습 중이다. 구종은 비밀인데 마무리 캠프부터 연습했는데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칭찬을 받았다”며 변화구 장착에 관해 설명한 김태형은 “비시즌에 몸 잘 만들어서 힘이 생긴 것 같다. 시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안 다치고 완주하는 게 목표다. 변화구도 많이 연습하겠다”고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홍민규는 자신의 특기인 체인지업을 바탕으로 입

지를 넓히겠다는 마음이다.

홍민규는 “프로에서 뛰어보니 고등학교 때와 확실히 달랐다. 기술적인 부분과 힘적인 부분이 달랐다. 상대의 힘도 다르고 가면 갈수록 내 힘도 떨어졌다. 그 부분 보완하고 더 잘하려고 한다”며 “나쁘지 않은 첫 해를 보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 변화구가 통하는 게 보이니까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또 “캠프 와서 형들도 다 잘 해주신다. (홍)건희 선배님이랑 같이 KIA에게 돼서 잘챙겨주신다. 감사하다”며 “지난 시즌 커브와 슬라이더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해서 던지고 있다. 작구 구위나 스피드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 변화구 3구종, 4구종 만들어 가겠다”고 캠프 목표를 이야기했다.

자신을 선택한 KIA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홍민규는 “두산을 떠난 건 아쉽지만 좋은 선수로서 KIA가 나를 뽑아주신 것이니까 그 부분은 기분이 좋다. 뽑아주신 것 후회하지 않게 해야 한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KIA라는 강팀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영광이다. KIA에 와서 첫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겠다. 잘하겠다”고 팬들을 만나는 순간을 그렸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에서 재회한 ‘친구’ 김태형(왼쪽)과 홍민규가 1일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1일 아마미 구장에서 번트를 대고 있다.(왼쪽)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왼쪽)과 이호연이 1일 아마미 구장에서 주루 훈련을 하고 있다.



‘이도류’ 오타니
타자로만 뛴다

WBC 지명타자 출전

지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야구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31)가 이번 WBC는 지명 타자로만 출전한다.

오타니의 소속팀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일(한국시간) 오타니가 다음 달 개막하는 WBC에서 마운드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타니는 2023년 WBC에서 투수로 3경기에 등판,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0.72로 눈부신 호투를 펼쳐 우승을 견인했다.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경기를 매조진 장면은 지난 대회 하이라이트였다.

그러나 오타니는 그해 MLB 정규시즌에서는 23경기 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를 남긴 뒤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2023 WBC에서 타자로 7경기에 나와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1홈런, 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345로 활약했던 오타니는 이번 WBC에서는 타격에 집중한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MLB 정규시즌 개막에 맞춰 투수로 등판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축축한 비·아찔한 부상… 그래도 훈련 시계는 돈다

악천후·돌발 변수 속 4일턴 소화…윤도현 김진결과 ‘이상무’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낸 KIA 타이거즈의 캠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IA는 지난 25일부터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 마음으로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는 지난 31일 날씨 악재를 만났다.

이날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KIA는 실내 훈련으로 스케줄을 변경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선수단은 오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진행한 뒤 일찍 퇴근길에 올랐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비였다. 도료를 거쳐 아마미로 이동을 했던 선수단은 초반 3일턴이 아닌 4일턴을 소화하고 있다.

25일부터 4일 훈련 뒤 29일 하루 쉬 선수단은 다시 4일턴 일정을 보내고 있다. 캠프 초반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 있는 4일턴 중간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셈이다.

날씨 변수를 만난 이범호 감독은 선수단의 훈련을 지켜보다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수비 훈련을 하던 내야수 윤도현이 바운드 된 공에 얼굴을 맞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눈썹 부위에 공을 맞은 윤도현은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이상 무’ 진단을 받았다.

비와 부상으로 험난한 하루를 보냈던 KIA는 1일 날씨가 개면서 다시 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예정됐던 엑스트라 훈련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한 KIA는 2일 두 번째 4일턴 마지막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은 불펜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FA 선수인 조상우와 김범수가 2일 캠프 첫 불펜피칭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배드민턴, 亞선수권 ‘동반 우승’ 도전

4강 이상 진출해야 세계선수권 자력 본선행…남북 서승재 불참

한국 남자 복식의 ‘간판’ 서승재(삼성생명)가 부상 여파로 아시아 단체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서승재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오픈 대회 중 입은 어깨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이번 대회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

서승재를 제외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회 개최지인 중국 칭다오로 떠났다.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2026 아시아 남녀 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오는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 남녀 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하는 대회다.

이 대회에서 4강 이상에 진출해야 세계남자단체선수권(토마스컵)과 세계여자단체선수권(우버컵) 본선 진출권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아직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

그동안은 일정과 컨디션 조절 등을 이유로 2진급 선수들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남녀부 모두 세계적인 상위 랭커를 아우른 ‘완전체’ 라인업을 가동하며 우승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대 성적을 살펴보면 여자 단체전은 2020년과 2022년 기록한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며, 남자 단

체전은 2024년 대회를 포함해 총 4차례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기 방식은 일반적인 개인전과 달리 국가 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진다. 단식 3경기과 복식 2경기를 혼합해 5전 3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출전국들은 조별리그를 거쳐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국을 결정한다.

대표팀이 최근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여자팀은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1위·사진)을 필두로 정예 멤버 10명이 출격한다.

특히 여자 복식의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공항·3위) 조는 지난 시즌 상위 랭커만 모인 ‘왕중왕전’ 월드투어파이널스 2연패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5위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 역시 메달권을 정조준한다.



반면 남자팀은 서승재의 이탈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유태민(김천시청·73위), 최지훈(삼성생명·110위), 박상용(요넥스·137위), 조현우(김천시청·217위) 등 단식 주자들의 국제

경쟁력이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남자 복식의 핵심인 서승재·김원호 조마저 가동할 수 없게 됐다.

파트너를 잃은 김원호는 현장에서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춰 전력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조 편성 결과, 한국 여자 대표팀은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Z조에 편성됐으며 남자 대표팀은 대만, 홍콩과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